

## 광학기사시험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광학기능사 신설에 필요한 제반조건과 절차를 점검한다.

취재 : 연정희기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인제가 없다'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인력난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한 오늘의 인력난은 상시적 및 만성적인 문제로 기업체와 취업 희망자 모두에게 골치거리로 남게될 것이다.

특히 이와같은 인력난문제의 해법을 정부에서는 병역특례제도 시행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내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운영,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그리고 노동부 전문인력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제도중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통해 배출된 광학기사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몫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학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광학기능사종목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종목에는 없어, 이의 신설을 바라는 목소리가 최근 광학 관련기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학기사시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또한 광학기능사종목 신설에 필요한 제반 조건과 절차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 광학기사시험 운영실태와 문제점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종목은 총 705개로

이는 크게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된다. 기술계에는 기술사와 기사 1,2급이 그리고 기능계에는 기능장과 기능사 1,2급 및 다기능기술자가 있다. 이중

현재, 광학관련 응시종목으로는 광학기사 1급만이 시행중이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광학기사-1,2급은 지난

90년도에 처음 신설, 광학기사 1급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2급은 시행 1년만인 '92년도에 폐지되었다.

또한 항공, 보도, 상업사진 등 사진촬영분야는 기능사시험이 있는데 반해 광학기능사시험은 아직 검정시행종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90년도에 처음 신설된 광학기사 1급시험에는 총 9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해인 90~91년도에는 필기시험의 경우 84명이 응시, 10명이 합격했으며 실기시험의 경우는 12명이 응시해 총 8명이 합격했다. 그리고 '92년부터는 매년 응시인원이 줄어 필기시험의 경우 92년에 23명, 93년 28명, 94년 22명, 95년에 16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나 93년도에 1명 이외에는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도표(광학기사 1급 응시 및 최종합격자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광학기사 1급시험 응시자수가 이처럼 매년 감소하고 있고 또한 합격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자격증 취득자들은 '기사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혜택이 산업계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청주대 광공학과 정치섭 교수는 '산업계에 광학기사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원모집 공고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우대나 일부시험 면제, 기사수당 제공 등의 혜택을 광학기사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제공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어떠한 혜택도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광학기사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청주대 정치섭 교수는

'하지만 청주대 광공학과에서는 광학기사 자격증이 취업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재학생들의 시험 응시를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학기사 1급 시험문제는 광학 관련 교수, 연구원들이 문제는 행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시험과목과 범위가 학부졸업자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응시자수 대비 최종합격자수가 평균 5% 미만인 것도 이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 광학기사자격증을 취득했음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기사자격증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년 제1회 광학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김남희

광학기사 1급 응시 및 합격자 현황

년도	필기시험			실기시험			최종결과		
	응시	합격	%	응시	합격	%	응시	합격	%
90~91	84	10	11.9	12	8	66.6	86	8	9.3
92	23	0	0.0	0	0	0.0	23	0	0.0
93	28	6	21.4	6	1	16.6	28	1	3.5
94	22	2	9.0	7	7	0.0	27	0	0.0
95	16	1	6.2	5	0	0.0	20	0	0.0

((주)이오테크닉스 개발실에서 근무)씨는 '광학산업현장에서는 기사자격증 보다는 오히려 기능사를 더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남희씨는 '현재 자신도 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개발실에서 일하려면 광학기사 자격증을 따도 전반적인 경험을 갖춘 현장경험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광학기사 시험범위와 영역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청주대 광공학과 정치섭 교수는 '현재 출제되고 있는 광학기사 시험의 난이도는 대학원 석·박사들이 풀기에 적합한 것으로 학부생들이 3~4년동안 공부한 것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전자 VCR 연구소 광기기팀에 근무하는 김기태씨는 '대학에서 고가의 분석장비 하나 제대로 만져볼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실제 장치를 만져봤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거나 또는 실제 현장경험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되고 있어 최종합격률이 낮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가기술자격검정

종목중 현재, 광학분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광학기사 1급 시험이 응시자에게는 물론 산업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 산업계에서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는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현재의 작은 투자가 장래 산업계에 큰 수확을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시험과목과 범위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경우, 현재보다는 많은 응시자들이 몰려 광학기사 1급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 광학기능사 종목 신설에 필요한 제반 조건과 절차

현재, 국내 광학산업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또는 그와같은 수준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국내 기술자격검정종목에는 광학기능사시험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내 광학 관련업계에서는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자 등으로서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기능사 1급과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기능사 2급 및 기능사보에 광학종목도 첨가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관리부 남윤성씨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종목중 광학기능사를 새로이 신설하려면 우선 광학기능사의 업무내용과 광학 관련 업체수 및 종사자수 그리고 부족인력을 파악한 자료를 노동부 자격진흥과로 보내야하며, 이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검토를 거쳐 노동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윤성씨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705개의 국가기술자격검정종목의 경우, 올해 법개정 작업을 거쳐 99년부터는 기사, 기능사 그리고 다기능사로 압축, 검정종목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수검인원이 없어 시험종목에서 제외되는 분야가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광학업계의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광학기능사 종목 신설 신청을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